

일상속

운동실천법 스포츠7330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매일 조금씩, 스포츠 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Let's walk together!



스포츠7330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부산체육

부산체육 2018 05+06 통권13호

발행일 2018년 6월 2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13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송미현 편집·취재 박주현, 최상욱, 김인근, 하나근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T.051-500-7900 F.051-505-63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디자인 대훈기획(T.051-898-0330)

사람과 사람

02 파워 인터뷰Ⅰ 부산광역시체육회 박용수 부회장

04 파워 인터뷰Ⅱ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

06 이달의 칼럼 언론사 기자 (CJ헬로 부산방송 김현정 기자)

이달의 이슈

08 공공스포츠클럽

스포츠 속으로

10 제18회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의 스포츠 소식

14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말레이시아국립체육회 양해각서 체결

16 2018 부산시민자전거대회

18 제13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20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4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8 2018 부산스포츠클럽, 태릉·진천선수촌 견학

29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교육

30 “부산광역시체육회·CJ헬로” 부산방송 업무협약 체결

31 2018 시·도(시·구·군)체육회 임직원 연수회

32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관 27주년 기념식 개최

33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알리미」 홈페이지 개설

34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36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38 구·군체육회 소식

50 회원종목단체 소식

스포츠 뉴스

54 2018년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연수회 개최

55 대한체육회, 2018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155개소 운영

56 공공스포츠클럽 멘토링 프로그램 ‘Sports Club Together’ 운영

57 2018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 전문교육 실시

청소년프로그램 매칭사업에 1억 원 지원

이달의 스포츠

58 야구에 울고 야구에 웃고,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

문화 속으로

62 야구 책과 영화

부산광역시체육회
박용수 부회장



선진 스포츠도시 부산으로의 도전 비인기 스포츠의 대중화 필요

Q. 기업인으로서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부산체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물론 제가 회사 차원에서 정구단과 골프단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취임 전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늘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올바른 생활체육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포츠 지도자를 키우고 더 나아가 실력 있는 선수들을 적극 후원하고 육성하는 등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시

키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튼튼하고 건강한 체육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Q. 개인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것으로 아는데요. 평소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시나요?

나이가 있다 보니 평소 걷기를 즐깁니다. 부산은 워낙 공기도 좋고 구경거리도 많아서 시간이 날 때면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며 피곤함을 날려버리곤 합니다.

또한 워낙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해온 터라 ‘골프’를 즐겨합니다. 파란 하늘 아래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를 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골프’를 치면 정신이 맑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며,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교류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구에도 관심이 있어 한 번 해보려고 했지만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운동이라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정구에 대한 애정은 남들보다 크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인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주)골든블루 정구단 선수들을 가장 좋아하고, 골프 선수로는 그래도 싱글맘으로 힘들게 프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안시현 선수를 늘 응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Q.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과 향후 부산체육이 나아갈 미래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국민소득 향상, 일과 삶의 균형 등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체육과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간이 날 때면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장에 직접 가서 스포츠를 관람하고, 수영, 요가, 볼링, 탁구 등 생활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그에 맞는 스포츠정신 확립, 비인기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통해 부산 스포츠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팀워크, 끈기, 도전정

신을 함양시키고, 스포츠 지도자 및 선수 등 전문가를 양성해서 스포츠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기구가 있는 시설을 설립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나아가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 국제 스포츠 도시-부산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비인기 스포츠의 대중화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은 지원이 부족하여 운동환경이 열악하고 훈련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시민들이 비인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립하고 교육, 정보를 제공하면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한국 스포츠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Q. 지금은 부산체육인들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단합과 화합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스포츠’를 경쟁으로만 보지 말고 바른 정신을 키우고 그 와중에 건강도 증진시키는 삶의 일부분이고, 협동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각 스포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를 인정할 수 있는 스포츠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승패를 떠나 준비과정을 중요시하고 승자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패자의 노력과 슬픔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지만 가장 기본적인 스포츠맨십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기본소양으로 자리 잡아 선진 스포츠도시 부산을 만들고, 이를 통해 향후 각종 전국 및 국제 스포츠대회에서도 단합과 화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



“스포츠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체육복지 대한민국

Q. 취임 이후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지난 4월 19일 29주년 창립기념식을 통해 “스포츠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 또 누리고, 나누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 누구에게나 스포츠가 일상의 즐거움이 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공단 비전인 “스포츠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를 이루기 위해서는 ①체육복지 확대 ②체육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③기금조성사업 패러다임 ‘수익성에서 건전성으로’ 전환 ④서울올림픽 레거시의 발전 ⑤모든 직원이 행복한 공단이라는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운동

할 수 있는 체육복지 확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체육시설 확충, 국민체력100사업 활성화,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Q. 이사장님께 체육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동서양 할 것 없이 체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지육·덕육과 함께 교육의 한 축으로서 체육은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인간답게, 건강하게 사는 데 필수적인데요. 따라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시작해 평생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 기반을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체육복지’ 환경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체육복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추진사업의 주요 키워드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곧 체육복지의 요체입니다. 즉, 체육활동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사회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체육활동은 이러한 건강수명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안전판입니다.

Q.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한지 2년이 흘렀는데요. 우리 체육인들의 발전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3S(System)가 있는데요. 3S에는 스포츠 장소와 시설(Area System), 프로그램(Program System), 클럽(Club System)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과 국민체력100 등으로 앞서 2개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럽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것이 과제이기에 ‘이기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일은 비단 공

단만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계 전반이 협력하여 클럽 양성에 힘써 일선 현장에 있는 체육 단체들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제 곧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조 3,276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대회예산 총 11.4조 원 중, 11% 이상을 공단에서 기여). 이러한 재정적 지원 외에도 공단이 보유한 스포츠과학 기술 및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동계종목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 국가대표팀의 스포츠과학 지원 요청에 따라, 총 25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팀을 구성하여 스피드스케이팅, 봅슬레이, 스켈레톤, 알파인 스노보드 등에서 메달 획득에 일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은 물론,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울 예정입니다.

Q.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한 말씀해주세요.

일본 현대 스포츠의 잔재가 여전히 한국 체육에는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군국주의였고, 그들이 유럽에서 스포츠를 배워 도입할 때 스포츠는 싸움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구호가 ‘화이트(파이트)’입니다. 우린 그것을 그대로 배워 ‘파이팅’을 외치는데, 정작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대회 이후 ‘화이트’ 대신 ‘간바레’로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도 파이트 대신 아름다운 우리말인 ‘으랏차차’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말이 체육복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새로운 구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우리지역 전문체육선수의 “꿈을 응원합니다”

지난 2014년, 케이블TV공동취재단으로 제95회 제주전국체육대회를 취재하게 됐다. 일주일간 취재하며 느낀 소감, “그들만의 리그”, “열악하다”. 경기장에 앉아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과 해당 협회 관계자, 대형 스타가 없는 종목은 더 암담한 실정이었다. 실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체육인들에게 전국체육대회는 마치 올림픽대회와 같이 한해 가장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대회다. 하지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일부 국제대회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를 제외하면 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진정성이 빚어낸 한 편의 드라마

전국체육대회를 다녀온 후, 지역 케이블방송의 기자로서 사명감이 생겼다. “이들에게 작은 동기부여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이 어느덧 70여 회 보도되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팀에서부터 신생팀, 비인기종목 등 각양각색의 팀과 선수들의 사연은 정말로 다이나믹했다. 인터뷰를 하다 선수들의 너무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울컥하기도 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팀이 있다.

지난해 7월에 잠시 쉬었던 ‘달려라 부산체육’이 시즌2를 시작하며 취재했던 기장중학교 축구부. 취재 당시 기장중은 2009년 부산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하고, 2010년 부산주말리그 3위, 청룡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8강 진출 등이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성적표였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팀이었다. 하지만 감

독과 선생님들의 팀에 대한 애정은 대단했다.

2012년 5월, 감독의 사임과 악재가 겹치며 팀이 해체되기까지 했던 순간, 기장중학교 축구부를 맡은 정선홍 감독은 6년째 팀을 이끌어가며 지난해에는 지도력 향상을 위해 일본 축구선수 출신 재일교포 코치를 영입하며 선진축구의 기술을 접목한 훈련에 매진했다. 또한 강문선 교장선생님의 경우, 직접 선수들의 마음근육을 강화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지어 직접 삼계탕을 끓여 아이들에게 챙겨주는 등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 선수들에게 목표와 꿈을 질문하자 답변은 “전국대회 우승”이라며 “꼭 이루겠다”는 포부를 당당히 드러냈다. 우승하면 취재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는데,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다.

7개월 후, 기장중학교 축구부가 전국대회 우승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한국 중등 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이 주관하는 제54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에서 기장중학교가 충무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1976년 기장중 축구부가 창단한 이래 전국대회 첫 우승 컵을 거머쥔 것이다. 학생들이 방송을 통해 본인의 꿈을 이야기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회자되자 “학생 스스로 동기부여가 더 탄탄히 이뤄졌고, 많은 훈련과 의지로 일궈낼 수 있었다”며 감독님과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연락이 왔다.

★부산체육의 내일을 열어갈 다음 주인공은 누구?

우리는 보통 선수들을 꿈나무라고 부른다. 그렇다. 전

문체육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선수는 부산체육의 탄탄한 근간이 되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영미”를 외치며 컬링 열풍을 일으킨 갈릭걸스, 부산발 열풍의 주역을 통한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지난 3월에 취재했던 팀 중 드라마를 써내려 갈 직감을 받은 카바디팀. 2002 아시아경기대회의 영향으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카바디가 시작됐고 유일하게 중앙본부가 부산에 있는 종목이다. 술래잡기와 피구, 격투기가 혼합된 인도의 변형 투기종목이지만 비인기 종목이다. 오는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 여럿이 바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에 설움을 부산발 카바디 열풍으로 넘어서보자.

꿈과 목표를 물어본 인터뷰에서 카바디팀 국가대표 주장인 이장군 선수는 “처음에는 카바디를 하면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가 목표였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동메달도 따게 되고, 모교인 동의대에 카바디를 알리고 싶어서 동아리도 만들고 후배들도 가르쳐줬다.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때는 저희 학교 후배와 같이 참가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색다른 것 같다. 한국 카바디 최초 2회 연속 메달을 따겠다”고 했다.

하늘이 내린 인재를 발굴해 종목 인지도를 키우겠다는 하늘만 바라보는 행정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땅에 씨앗을 뿌려 잘 클 수 있는 동기부여와 수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자생력 확보라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소수 인물에 기대하는 것은 외부 변수에 흔들릴 확률이 높다. 비인기 종목에 몸담은 선수들의 땀방울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땀방울보다 가볍지 않다. 그들이

흘린 땀의 잔해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스포츠연맹과 현역 체육인, 지역의 언론사들이 유념해야 할 숙제다.

올 하반기에는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고교야구 주말리그의 중계방송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70-80년대 고교야구의 전성기를 돌이켜보며 부산지역 고교팀의 경기를 방송하고, 학생들의 응원문화 활성화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보자는 취지다. 중계비와 경기장 등 기타 풀어야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러한 작은 산들바람이 모여 태풍이 되어 돌아오길 바란다.

‘달려라 부산체육’ 뉴스 리포트 말미에 항상 고정으로 이야기하는 문장. “달려라 부산체육은 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부산체육의 내일을 응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김현정
CJ헬로 부산방송 선임기자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 공공스포츠클럽(거점, 지역스포츠클럽)의 정의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기초단체 체육센터 등)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의 스포츠클럽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2013년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63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부산광역시에는 전문체육선수 육성을 우선하는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1개소와 생활체육을 우선으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역스포츠클럽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공공스포츠클럽 : 일반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와 다른 점

일반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공급자 중심 운영 센터의 의사결정은 센터 경영진이 결정합니다	참가자 중심 운영 종목별 회원 대표자는 클럽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집니다
종목 프로그램 중심 종목 외 참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적습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스포츠클럽은 종목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문체육 육성 진행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인과 함께 클럽에서 직접 엘리트선수를 육성합니다
일반 체육 동호회	스포츠클럽
성인 중심 운영 동호회 대부분은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다연령/다수준 회원 구성 성인 뿐만 아니라 유아/청소년/노인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종목 프로그램 중심 동호회는 전문지도자 없이 참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지도자 보유 종목별로 전문지도자를 보유, 저렴한 가격에 강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동호회는 취미생활을 위한 모임이며 엘리트선수를 육성하지 않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진행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인과 함께 클럽에서 직접 전문체육선수를 발굴합니다

그 외에도 공공스포츠클럽은 회원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확인할 수 있는 자체대회를 제공하며, 우수한 실력을 갖춘 회원에게는 외부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 가능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첫 번째(지역전문선수 육성)는 자체 전문체육선수를 육성하고 스포츠클럽명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선수 육성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에 지역의 우수 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청소년 및 가족단위 참가 확대)는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30% 가량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수준 높은 종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참가 프로그램 통해 전체 회원의 10%가 스포츠를 통한 가족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치실현을 증대할 수 있다.

세 번째(자원봉사 문화 확산)는 공공스포츠클럽 회원의 자발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끝으로(은퇴선수 일자리 창출) 공공스포츠클럽은 은퇴선수 중심으로 지도자 채용이 이루어져 지역 은퇴선수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부산광역시에서 운영되는 공공스포츠클럽 현황

지역	클럽명	운영종목	선수반	주 소	연락처
부산시	부산광역시 (거점)	테니스, 역도, 체조, 펜싱	테니스, 펜싱, 역도, 체조	부산광역시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35-6	051-714-7330
사상구	신나는사상	수영, 헬스, 배드민턴, 탁구, 요가, 필라테스, 야구, 장애인체육, 테니스, 게이트볼, 골프	수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학장동)	051-319-7330
서구	부산서구	수영, 헬스, 탁구, 필라테스, 요가, 검도, 댄스, 배드민턴	수영, 탁구, 물러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121 송도스포츠클럽센터	051-250-7302
동래구	동래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필라테스, 댄스, 스피닝, 탁구, 배드민턴, 클라이밍, 태권도, 생활체조, 다이어트댄스, 건강요가	수영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110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051-503-7613
북구	부산북구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배드민턴, 유직필라테스, 요가, 타바타, 파워로빅, 파워다이어트로빅, 줌바로빅, 건강스트레칭, 바디체인지	수영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484번길 83 와석초등학교	051-365-7070
해운대구	해운대구	수영, 필라테스, 아쿠아로빅, 헬스, 축구, 요가, 줌바댄스, 자세교정	축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53 (반송동,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	051-717-3445
금정구	금정-부산외대	배드민턴, 축구, 펜싱, 댄스스포츠, 필라테스, 요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3층(남산동, 체육관)	051-518-6003
부산진구	부산진구	수영, 배드민턴, 농구, 탁구, 피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35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051-710-7628
사하구	사하	수영, 헬스, 배드민턴, 골프, 에어로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68 사하국민체육센터	051-202-3800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한마당 제18회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두 달여 앞으로

44억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 아시아경기대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대회는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진행된다.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개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 이란 등 총 45개국이 참가해 39개 종목 426개 경기를 치르며 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당초에는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경제적 파급 효과 미비,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개최권을 자진 포기했다. 이에 유일하게 유치 의사를 표명한 인도네시아가 개최지로 확정됐다.

사진제공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의 중심, 자카르타 - 왕조의 수도, 팔렘방

적도 바로 아래(남위 6.55도) 1만37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 그런 만큼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이곳은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2억6천만 명의 대국이다. 자바섬 서북쪽의 수도 자카르타는 정치·경제·행정 중심지로 인구 1천만 도시고, 팔렘방은 자카르타에서 400여km나 떨어져 있는 수마트라섬에 위치해 있다. 인구 180만 명, 인도네시아 제7의 도시인 팔렘방은 7~10세기의 강력한 말레이 왕국이었던 스리비자야 왕조의 수도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62년 제4회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한 뒤 56년 만에 다시 이번 대회를 유치했다. 과거 우리나라처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주목받으며 해마다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 세계 상위권을 다투는 역동적인 나라, 인도네시아. 최근 자카르타 현지에선 한국 K팝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시작된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다음으로 큰 종합스포츠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 그 출발점은 6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3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처음 닻을 올린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는 극동선수권대회와 서아시아경기대회를 합한 것으로 1948년 런던올림픽대회 기간 중 아시아 13개국 단장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탄생했다. 1회 대회는 1950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인도 국내 사정으로 1년 연기됐다. 여기서는 11개국 489명의 선수가 8개 종목을 놓고 겨뤘다.

우리나라도 제1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후 1954년 제2회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부터 줄곧 참가한 한국은 국력 성장과 함께 지금은 중국, 일본과 함께 우승을 다투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서울 아시아경기대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까지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아시아경기대회를 4번 개최한 태국에 이어, 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대회를 개최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는 1986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까지 모두 3번의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스포츠 강대국이다.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27개국 3,345명의 선수가 27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 유도, 태권도, 여자사이클, 여자사격 등이 처음 실시된 대회이기도 하다. 이 대회에서 가장 떠오른 선수가 바로 임춘애 선수. 그녀는 불굴의 의지로 육상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2 한일월드컵 이후에 치러진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도 인상적인 대회로 기억된다. 처음으로 아시아올림픽 회원국 44개국이 모두 참가한 첫 대회로 주목받



우리나라는 지난 1966년 태국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처음으로 2위에 오른 이래 총 9차례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한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종합 2위를 목표로 대회에 참가한다.



았다. 44개국 11,000명의 참가선수가 38종목에 참가했다. 이 대회의 가장 큰 핫이슈는 북한의 참가. 단일팀까지는 아니어도 미녀응원단에 개회식 동반 입장 등 큰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지난 대회였던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45개국 13,000여 명이 참가, 36개 종목에서 경쟁했다.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도 한국 메달순위 2위 목표

그렇다면 지난 17회까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의 성적은 어땠을까? 우리나라는 지난 1966년 태국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처음으로 2위에 오른 이래 총 9차례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 79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79개로 총 228개의 메달을 획득해 1위 중국(총 343개)에 이어 2위를 달성했다.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한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메달순위 2위를 목표로 대회에 참가한다. 특히 일본과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그 동안 일본은 아시아경기대회 일부 종목에서 2진급 선수를 파견했다. 하지만 2020년 안방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이번에는 전원 1진급으로 선수단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 선수단이 메달순위 2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단일팀의 역사

오는 8월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첫 남북 단일팀은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이뤄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입장 합의에 이어, 단일팀 구성을 추진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4일,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선수들이 단일팀을 꾸린 것이다. 1945년 분단 이후 남북은 10회 넘게 단일팀 구성을 추진했으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과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여자아이스하키, 그리고 이번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까지 4번만 이뤄졌다.

남북 단일팀은 '코리아'란 이름으로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 여자팀(현정화·리분희)은 단체전 우승, 남자팀은 단체전 4강 진출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또 이 대회부터 남북한 국기 대신 하늘색 한반도기, 국가 대신 '아리랑'이 불렸다. 이어 그해 6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도 남북 단일 축구팀이 참가해 사상 첫 8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둔 2018년 1월 17일, 남북이 차관급 실무회담을 통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된 것은 1991년 탁구와 남자 청소년 축구에 이어 3번째지만, 올림픽대회에서 단일팀이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오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남과 북이 어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할지 기대해본다.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말레이시아국립체육회 양해각서(MOU) 체결

인적교류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분야 상호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는 3월 26일부터 29일 까지 4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기업연계 스포츠지도자 해외파견과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 체결을 하였다.

이번 말레이시아국립체육회와의 양해각서(MOU)에는 스포츠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선수를 지원할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의 인적 파견과 연계기업의 말레이시아국립체육회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후원사 지정으로 스포츠와 관련한 기술적·과학적·재정적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무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양국 간의 스포츠 기관 방문과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을 통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우호·협력을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류 추진 등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말레이시아국립체육회는 양국의 체육회 발전을 위해 각 국가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초청팀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8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대회」 및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시 초청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말레이시아국립체육회 역시 「슈퍼목 컵 2018 국제

축구대회」 참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양국은 체육회 강세종목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국립체육회 방문 이후 청소년체육부를 통하여 양국의 선진체육 프로그램 교류와 국제스포츠교류 담당직원 파견근무 제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 부산은 2020년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를 대비한 베이스캠프 훈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에는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외 전지훈련 유치에 따라 국제스포츠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기업연계 스포츠지도자 해외파견으로 지식전수와 인력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청년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과 부산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문단 단장인 송미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양국의 첫 만남을 통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스포츠도시 「부산광역시」라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2020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등 국제대회 유치와 더불어 국제적인 스포츠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두 바퀴로 달리는 봄빛 향연 2018 부산시민자전거대회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18 부산시민자전거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싱그러운 4월, 세상을 바꾸는 두 바퀴의 힘으로 참가 시민 모두가 하나 된 2018 부산시민자전거대회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보았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낙동강변을 질주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4월 7일(토) 화명생태공원 및 국토대장정 자전거전용도로에서 1,7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가족, 친구, 연인, 직장동료, 자전거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2018 부산시민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화명생태공원 민속놀이마당을 출발지점으로 일반코스(45km)와 가족코스(24km)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일반코스 참가자 출발 후 가족코스 참가자들이 뒤이어 출발했다. 일반코스는 화명생태공원에서 물금취수장

가야진사까지 왕복하는 코스이며 가족코스는 물금취수장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출발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부산광역시체육회를 비롯해 부산광역시교육감, 북구체육회장, 자전거연맹회장,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참가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자전거는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다.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은 심폐기능 발달, 하체근력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해주는 생활 스포츠이다. 우리 체육회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친환경 녹색교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참가자 인터뷰

김순영 / 김해 연지 MTV회장

“작년에 저희가 동호회를 만들고 2년째 연지 MTV 회원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했어요. 날씨가 작년보다는 약간 춥지만, 자전거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깐 괜찮습니다. 오늘 공기도 맑고 좋네요. 일반코스 45km 완주할 예정인데 항상 안전을 생각하고 라이딩 하겠습니다. 파이팅!”

노현식 / 개인 라이더

“평소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 이런 대회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자전거 거대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와보니까 저처럼 개인으로 참가하신 분들도 많네요. 많은 친구들과 동료로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열정을 다해 완주하겠습니다”

강다원 / 자원봉사자 부산시여성자전회장

“저는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시민자전거대회에 매년 참가했는데 선수로는 아니고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매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완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도심 속 자전거도로에서 느끼는 자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우열을 가리는 경쟁방식이 아닌 대회 코스를 완주하는 비경쟁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기록에 대한 부담 없이 즐기는 대회로 부산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자전거 도로를 즐겁게 누비며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친환경 녹색생활과 건강증진 등 바람직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외활동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 자전거를 가지고 인근 공원이나 가까운 교외로 나가 마음껏 달려보길 바라며 부산시민자전거대회에 내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기를 기대해본다.



100세 시대
“우리는 청춘이다”
제13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구·군체육회 산하 8개 종목 1,500여 명 어르신동호인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5월 4일(금) 중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등 6개소에서 어르신동호인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어르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체조, 그라운드골프, 국학기공 등 총 8개 종목을 구·군 대항전으로 펼쳐, 평소 즐겁게 운동하며 쌓아온 실력을 선보였다. 또한 건강을 위해 몸소 생활체육을 실천하는 참가자 가운데 이옥분(해운대구 게이트볼, 여자) 어르신을 비롯해 종목별 최고 어르신들에게 특별상을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건강 축제

이날 개회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부산광역시체육

회장은 “어르신체육대회는 경연의 장이기도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을 위한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그 동안 흘린 땀방울이 보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멋진 경기와 힘찬 응원을 펼쳐, 각 구·군 어르신 선수들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 건강의 마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부산 최고의 어르신대회로 자리 잡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어르신체육대회」는 매년 증가하는 노년인구에 발맞추어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르신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참가 어르신 모두 평소 같고 닮은 실력을 마음껏 자랑하며 20대 못지않은 기량을 선보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육대회를 통하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의 어르신 대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경기결과

종 목	우 승	준 우 승	공동 3위 및 징역
축 구	영 도 구	남 구	금정구, 동래구
배드민턴	수 영 구	동 래 구	부산진구, 금정구
테 니 스	기 장 군	해 운 대 구	부산진구, 금정구
게이트볼	부 산 진 구 A	강 서 구 B	동구A, 부산진구B
탁 구	금 정 구	수 영 구	연제구, 영도구
체 조	사 상 구	동 래 구	수영구, 북구
그라운드골프	사 상 구	금 정 구	북구, 남구
국학기공	해 운 대 구	연 제 구	수영구, 강서구

최고 어르신 수상자 현황

종 목	소 속	성 별	성 명	생년월일
축 구	기 장 군	남	조 령	44.04.18
배드민턴	수 영 구	남	김 환 식	33.03.16
	서 구	여	이 건 욱	37.04.05
테 니 스	동 래 구	남	임 용 구	41.03.15
	부 산 진 구	여	김 옥 순	52.12.10
게이트볼	금 정 구	남	강 성 호	29.05.05
	해 운 대 구	여	이 옥 분	27.12.03
탁 구	북 구	남	김 외 순	42.10.20
	서 구	여	최 춘 자	45.03.13
그라운드골프	강 서 구	남	김 병 권	31.01.21
	영 도 구	여	조 순 만	32.04.03
국학기공	동 래 구	남	정 현 조	35.02.26
	사 상 구	여	심 판 덕	32.02.17
체 조	연 제 구	남	양 주 철	35.12.19
	연 제 구	여	이 찬 희	33.05.12



전국 1,800만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어울림 대잔치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소통과 화합, 우정을 나누는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개막식이 5월 11일(금) 개최되었다. 2001년 제주에서 시작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와 함께 국내 유일의 5대 체육대회 중 하나이다.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충청남도 아산시를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에서 5월 10일(목)부터 5월 13일(일)까지 4일간 열렸다.

부산광역시선수단 결단식을 통한 승리 기원

●● 지난 5월 11일(금)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참가 종목별로 부산광역시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결단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결단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박희재 생활체육위원장과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현 의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과 임원들이 참석해 부산광역시선수단을 격려했다. 박희재 생활체육위원장은 “부산 동호인 전체를 대표하여 이번 대축전에 참가하는 선수 여러분께서는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라며 “결과에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여 부산시민의 좋은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심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결단식 이후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직원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선수단들은 힘찬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장인 충청남도 이순신종합운동장으로 출발하였다.

화합과 감동을 전하는 축제의 한마당

●● 지난 5월 11일(금) 오후 6시부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선수 및 임원, 자원봉사자, 주요인사 등 1만3천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 주제는 “판을 열다, 모으다, 만나다, 날아오르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입장식의 첫 번째 순서로 입장한 충청북도 선수단에 이어 3번째로 입장한 부산광역시선수단은 “끓고! 줄이고! 운동하자!”는 슬로건 아래 현수막을 들고 참가하였으며 부산시민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부산시민 모두가 “질병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선수단 저력과시! 질서상 1위!

●● 이번 대축전에 부산광역시선수단은 36개 종목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가하여 정식종목인 그라운드골프, 요트, 체조, 풋살 4개 종목에서 2위에 올랐고 골프, 국학기공, 당구, 우슈, 파크골프 5개 종목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시범종목인 핸드볼 1위, 궁도 3위를 수상하며 부산선수단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선수단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체육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였던 단체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부산광역시선수단이 질서상 1위를 받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100세 시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행복 충남,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월 10일(목)부터 5월 13일(일)까지 4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13일(일) 이순신빙상장·체육관에서 폐회식을 가지며,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했던 전국생활체육 동호인의 축제 한마당은 막을 내렸다.

2018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식 개최

●●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했던 부산광역시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금)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박희재 생활체육위원장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직원, 회원종목단체 선수 및 임·직원, 구·군체육회 사무국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해단식」이 개최되었다.

해단식은 뜨거운 열정의 교류 현장을 담은 부산선수단 영상을 시작으로 성적보고, 선수단기봉납, 입상 종목의 상배봉납, 입상 회원종목단체 시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박희재 생활체육위원장은 “이번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좋은 기량을 펼친 부산선수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광역시선수단은
36개 종목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가하여
정식종목인 그라운드골프, 요트, 체조,
풋살 4개 종목에서 2위에 입상했고,
골프, 국학기공, 당구, 우슈, 파크골프
5개 종목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 종목별 종합순위

No	참가종목	종 합 순 위			
		1 위	2 위	3 위	공동3위 (장려)
1	검 도	서울	인천	울산	
2	게이트볼	경기	대구	전남	
3	골 프	전북	서울	부산광역시	
4	국학기공	서울	경기	부산광역시	충북
5	그라운드골프	충북	부산광역시	경기	경남
6	농 구	경기	인천	충남	
7	당 구	서울	경기	부산광역시	
8	배 구	경기	전남	전북	
9	배드민턴	경기	전북	충남	
10	보디빌딩	경기	충남, 경남	서울	
11	볼 링	경기	대구	대전	
12	수 영	경기	서울	충북	
13	스쿼시	충남	인천	대전	
14	스킨스쿠버	대구	충남	인천	
15	씨름	경남	경기	경북	
16	야 구	서울	인천	전북	
17	에어로빅	충남	경기	대구	
18	요 트	서울	부산광역시	경기	
19	우 슈	경기	충남	부산광역시	
20	육 상	경기	서울	경남	
21	인라인스케팅	경기	서울	대구	
22	자 전 거	경북	서울	경남	
23	정 구	경기	경북	경남	
24	족 구	경기	경남	충남	
25	축 구	경기	인천	서울	
26	체 조	충남	부산광역시	경기	
27	탁 구	경기	서울	경북	
28	태 권 도	경기	경북	대구	
29	택 건	경기	경남	인천	
30	테 니 스	경기	강원	전남	
31	파크골프	대구	충남	부산광역시	
32	패러글라이딩	경기	전북	충남	
33	풋 살	서울	부산광역시	대전	
34	궁 도	서울	충남	부산광역시	경남
35	줄 넘 기	경기	인천	광주	
36	핸 드 볼	부산광역시	경기	서울	충남

●● 시도별 시상

구분	1위	2위	3위
질 서 상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기운영상	대한줄다리기협회	대한족구협회	대한국학기공협회
특 별 상	충청남도	대한배구협회	대한검도회
경 기 력 상	경기도		
성 취 상	충청남도		



푸른 5월 전국 초등·중학교 스포츠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5월 26일(토)부터 29일(화)까지 4일간 충청북도 충주시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47개 경기장에서 1만 7000여 명의 선수 및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 중 부산광역시선수단은 36개 종목에 1,02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근대3종 20년 만에
단체경기 우승

지난 5월 26일(토)에 치러진 근대3종 단체경기에서 부산체육중학교 김동현 등 4명(김동현, 김용하, 손정욱, 신찬우)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부산광역시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소년체육대회 종목 채택 이후 20년 만의 첫 메달이었다. 부산체육중학교 조민호 코치는 “단체경기에서 서로 격려하며 따낸 금메달이라서 더 값진 메달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계영400m, 접영100m,
접영50m에서
3관왕 차지

반송여자중학교 김윤희 선수는 청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계영400m, 접영100m, 접영50m(대회신기록 수립 59.64초)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부산선수단에게 다관왕의 영예를 안겼다. 지난 2년간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났던 김윤희 선수는 “수영을 배울 때 처음 접했던 종목이 접영이었다. 그래서 더욱 애착이 갔는데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서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부산체조계의 기대주
금메달 수확

온천초등학교 이태호 선수는 지난 28일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기계체조 남자초등부 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태호 선수는 늦게 운동을 시작했지만 훈련영상을 분석한 후 일·월별 계획을 세우는 등 남다른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오종환 감독은 “이태호 선수는 근성이 있으며 승부욕이 강하고 남다른 연습벌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레슬링 전사들의
황금빛 메달 석권

재송중학교 박상원, 부산체육중학교 성영준 선수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자유형 100kg급, 그레코로만형 42kg급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부산광역시레슬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주변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로

음성체육관에서 열린 복싱대회에서 부산체육중학교 강정민 선수가 라이트플라이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강정민 선수는 중학교 입학 후 여러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유독 전국소년체육대회와는 인연이 없어 2017년 은메달, 2016년에는 동메달에 그쳤다. 이에 강정민 선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마지막 해에 금메달을 따서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궁 메달획득을 위한 노력과 그 결실

대평초 고성훈 선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길희 코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확실한 목표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무엇보다 선수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 금메달

연번	종 목	부별	성 명	세부종목
1	육 상	남중	권 용 현	장대높이뛰기
2	육 상	여초	강 민 경	200m
3	수 영	남초	김 민 재	스프링보드1m
4	수 영	여중	김 윤 희	점영100m
5	수 영	여중	선 발	계영400m
6	수 영	여중	김 윤 희	점영50m
7	복 싱	중학	강 정 민	라이트플라이급
8	레슬링	남중	박 상 원	자유형110kg
9	레슬링	중학	성 영 준	그레코로만형 42kg
10	유 도	여중	정 나 리	52kg이하급
11	앙 궁	남초	고 성 훈	35m
12	체 조	남초	이 태 호	링
13	태 권 도	여초	장 해 지	33kg~36kg
14	태 권 도	여중	박 정 현	68kg초과
15	근대 3종	남중	선 발	단 체 전
16	에어로빅	여중	차 지 원	개 인 전

●● 은메달

연번	종 목	부별	성 명	세부종목
1	육 상	남중	이 성 민	장대높이뛰기
2	수 영	여중	선 발	싱크로다이빙3m
3	수 영	남중	권 희 준	자유형400m
4	수 영	여중	이 송 은	개인혼영200m
5	농 구	여중	-	단체전
6	자 전 거	남중	선 발	단체스프린트
7	레슬링	중학	이 준 업	그레코로만형55kg
8	레슬링	중학	이 지 민	그레코로만형51kg
9	앙 궁	남중	김 형 민	60m
10	사 격	여중	진 소 윤	공기권총개인
11	체 조	남초	이 태 호	평행봉
12	체 조	여중	김 서 현	도마
13	근대 3종	남중	선 발	계주
14	조 정	남중	선 발	더블스컬
15	요 트	중학	선 발	단체전
16	바둑	남중	선 발	단체전
17	에어로빅	중등	선 발	5인조

●● 동메달

연번	종 목	부별	성 명	세부종목
1	육상필드	여초	강 민 경	멀리뛰기
2	수 영	남초	김 민 재	플랫폴다이빙
3	수 영	남중	권 희 준	자유형800m
4	수 영	여중	안 유 진	점영200m
5	수 영	여중	안 유 진	점영100m
6	수 영	여중	부산산발	혼계영400m
7	레슬링	중학	우 세 민	자유형55kg
8	레슬링	중학	정 세 민	자유형65kg
9	레슬링	중학	박 정 현	그레코로만형80kg
10	역 도	남중	윤 현 빈	합계62kg급
11	역 도	남중	윤 현 빈	용상62kg급
12	역 도	남중	정 중 민	용상94kg이상
13	씨름	중학	김 성 국	경 장 금
14	씨름	중학	이 민 웅	역 사 금
15	유 도	여초	김 여 주	57kg이상
16	볼링	남중	조 민 규	개인전
17	체 조	여초	김 소 연	마루운동
18	태 권 도	남중	한 상 윤	41kg~45kg
19	태 권 도	남중	이 정 민	45kg초과49kg까지
20	롤러	남중	김 태 우	300MTR
21	조 정	남중	류 준	싱글스컬
22	요 트	남중	성 시 유	개 인 전
23	요 트	여중	박 정 빈	개 인 전
24	승마	중등	김 의 현	장애물비월경기
25	에어로빅	남중	박 태 호	개 인 전
26	에어로빅	여초	박 지 연	개 인 전
27	펜싱	남중	-	에페단체전
28	배드민턴	여중	-	단 체 전
29	축 구	남중	-	단 체 전
30	하 키	남중	-	단 체 전

에어로빅의 아름다운 비상

제천시아울림체육센터에서 열린 에어로빅 개인경기에서 신곡중학교 차지원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종목별 최우수선수로도 선정되었다. 최인영 코치는 “그 동안 흘린 땀과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차지원 선수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부산육상계의 금빛 낭보

대청중학교 권용현(장대높이뛰기), 동주초등학교 강민경(200m) 선수가 육상 필드·트랙에 참가해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육상연맹 관계자는 “휴일도 없이 훈련에 매진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취약종목 선전으로 메달 종목의 다양화

부산광역시선수단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16개, 은 17개, 동 30개 등 총 63개 메달을 획득하였다. 특히 근대3종, 승마, 유도, 조정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메달종목의 다양화로 더욱 큰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한국체육의 역사를 체험하다 2018 부산스포츠클럽, 태릉·진천선수촌 견학



지난해 9월 진천선수촌이 개관하면서 그 동안 한국스포츠의 산실이었던 태릉선수촌이 일반인을 위한 체험과 교육의 장소로 탈바꿈했다. 이에 역사의 현장인 태릉선수촌과 국가대표의 새 요람인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된 생활체육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인 입촌 생활기를 소개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3월 27일(화)부터 28일(수) 양일간 태릉선수촌에서 진행되는 생활체육 연수 프로그램에 부산스포츠클럽영재교실 꿈나무 40여 명을 참가시켰다. 1박2일에 걸쳐 진행된 생활체육 연수 프로그램은 태릉·진천선수촌 훈련시설을 견학하고 한국체육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으로 참가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태릉선수촌 입촌 1일차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식단이 제공되었으며 국가대표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수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한 태릉선수촌의 오륜관과 국제스케이팅장에서 배드민턴 및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우는 체험시간을 가졌다.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의 도전 이야기로 진행된 이론 강의도 이어졌다. 이 강의에서는 실제 선수들이 겪은 부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주된 부상과 응급처치, 부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자세 등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2일차에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촌의 산실인 진천선수촌을 방문하여 수영센터, 농구·배구장, 실내테니스장, 실내사격장, 필승관, 개관관, 오륜장 등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 훈련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태릉선수촌의 생활체육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스포츠클럽영재교실 꿈나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최선을 다하고, 미래에 부산체육을 대표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하는 우수한 선수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운동하는 습관을 갖게 하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교육



청소년기 체육활동의 중요성과 운동효과는 다양한 체육논문이나 전문잡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자유롭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운영한다. 그 교육을 담당하는 부산시의 16개구·군 강사 교육 현장을 찾아가보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습이 운영되기 이전 3월 31일(토)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그랜드홀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 및 주말체육학교 강사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교육」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육내용으로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하태욱 장학사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의 실제 및 인성교육” 강의를 시작으로 장석왕 강사의 “스포츠 안전교육”, 정성우 교수의 “아동운동의 스포츠사회·심리학적 이해”, 김현자 강사의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현재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사업은 지난 4년 동안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995,533명(학교 안 911,780명, 학교 밖 83,753명)에게 주말체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왔다.

송미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한 청소년의 1인 1체육으로 체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비롯하여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체육회·CJ헬로” 부산방송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민과 부산체육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ONLY ONE 정신으로 모든 면에서 최초·최고·차별화를 추구하며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전문방송사 CJ헬로 부산방송과 뜻 깊은 첫 만남을 가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4월 26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지역방송사인 CJ헬로 부산방송과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부산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강명환 CJ헬로 부산경남 총괄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CJ헬로 부산방송은 우수 솔루션과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부산시민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지역케이블 방송사이다.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부산체육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며 이를 방송하게 된다.

또한,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각종 대회와 행사 등 뉴스로 보도하고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산시민에게 홍보하여 더욱 다변화하는 체육회를 기대해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CJ헬로 부산방송과의 업무협약은 국제스포츠도시「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산지역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 각종 대회 개최·유치 등으로 부산체육발전을 위한 부산시민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민 건강증진과 부산체육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명환 CJ헬로 부산경남 총괄대표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협약을 계기로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스포츠선진화 방안 논의 2018 시·도(시·구·군)체육회 임직원 연수회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20일(화)부터 2일간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시·도(시·군·구)체육회 임직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에는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임직원 등 245명이 참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며 화합하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체육회와 지역 체육단체 상호간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번 연수회는 ‘KSOC 아젠다 2020’ 영상 시청과 특강, 올해 대한체육회의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강으로는 김병욱 의원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기초종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와 대한체육회 정책연구센터 이병진 연구위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다루어졌으며 이후 대한체육회 각 본부별 사업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운영본부에서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체육대회와 관련된 일정 및 시·도 대표자 회의내용을 안내하였다. 스포츠클럽부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중요성과 지금까지 선정되어 운영 중인 클럽의 사례 설명 및 지역체육단체의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국제본부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대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일정 안내 및 2018 대한민국 선수단이 파견되는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 시·도(시·구·군)체육회 임직원들은 올해도 지역체육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민이 함께 즐기며 체육을 시작하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관 27주년 기념식 개최



재단법인 사회체육센터(이사장 박희채)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관 27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23일(금)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부산사회체육센터 이사장이며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인 박희채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총면적 21,214.20㎡로 지상 3층으로 지어졌으며 건물로 1층에는 수영장, 소극장, 소체육관, 쉼터 및 부대시설, 지상 2층에는 대체육관, 유아체능단교실, 헬스클럽을 포함한 체육시설, 지상 3층에는 서예실, 탁구장이 있으며 옥외에는 테니스장, 골프장 등이 있다. 각 층에서는 수영, 헬스, 배드민턴, 검도, 골프, 재즈댄스, 배구, 탁구, 농구 등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높은 호응으로 현재 3,500여 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1인1스포츠클럽 갖기를 실천하고 있다.

참고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지난 제24회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을 기념하고 범시민적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부산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부산시민 복지증진과 심신을 단련시키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을 위하여 1991년 3월에 건립되었다. 27년이 지난 지금, 부산시민들에게 체육복지 및 스포츠문화를 보급하는 전문 체육센터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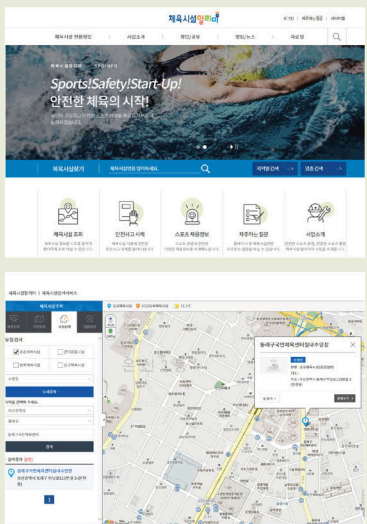
박희채 이사장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건강하고 활기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알리미' 홈페이지 개설

우리 동네
체육시설은 어디에 있을까?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은 공공·민간 체육시설 현황 및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육시설 알리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정보가 공유되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체육시설 알리미 홈페이지 www.spoinfo.or.kr ● 「체육시설 알리미」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대국민 통합 안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창구로 확인이 가능하다.

주요기능 : 체육시설 간편 조회, 안전사고 사례 공유, 스포츠 채용정보 안내 등

우리 동네 체육시설 찾기 ● 운동은 하고 싶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확한 시설명칭을 모른다면 가까이 있는 체육시설 정보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체육시설 알리미」 서비스이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체육시설 찾기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빠른검색, 지역검색, 유형검색, 맞춤검색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지역 체육시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7만8000여 개 체육시설 정보를 홈페이지 위치 기반으로 지도를 검색할 수 있다. 빠른검색은 원하는 키워드로, 유형검색은 공공체육시설·등록체육시설·간이체육시설 등 시설운영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체육시설 알리미」는 지도 검색뿐만 아니라 시설정보, 운영정보 등도 손쉽게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민간체육시설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서비스도 있다. 체육시설 대표자들은 회원가입 후 체육시설 등록보험정보 등록 또는 자율안전점검 결과등록 후 체육시설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시설 안전콜센터(02-410-148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국민체육 21(4월호) 중에서



꿈나무체능단 소식

지난 4월 13일(금) 꿈나무체능단의 '첫 야외활동'이 있었다. 이날 꿈나무 체능단은 부산시민공원으로 봄 소풍을 가서 친구들과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입학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 모두 잘 적응하며 알찬 하루를 보냈다.



요가 신규 프로그램 개강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신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아침요가, 직장인요가 교실이 개강된 것이다. 신규 프로그램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해 개강 이전에 회원을 대상으로 4월 30일(월) 공개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부산국민체육센터 등반대회 개최



지난 4월 29일(일) 직원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금정산 등반대회'가 열렸다. 화창한 주말에 임·직원들은 등반대회에 참가하여 등산로를 따라 산 정상까지 종주하면서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체 방역 실시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부산국민체육센터에서는 매일 자체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들이 사용하는 체능단 교실 및 수업 장소는 에탄올 소독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려고 한다.



수영 ※부가세 포함

시 간	프 로 그 램	요 일	참 가 비	대 상
06:00~06:50	새벽수영	A반 월수금	성 인 51,700	청소년이상
		B반 화목토	노 인 48,400	
		C반 월~금	성 인 67,100	
07:00~07:50 08:00~08:50	생활수영	A반 월~금	노 인 52,800	청소년이상
		B반 월~금	청소년 10,500	
09:00~09:50	어머니수영	A반 월수금	성 인 51,700	성인 여성
		B반 화목토	노 인 48,400	
10:00~10:50	웰빙수영 (격 일)	A반 월수금	성 인 51,700	성인 여성
		B반 화목토	노 인 48,400	
11:00~11:50	웰빙수영 (매 일)	C반 월~금	성 인 67,100	성인 여성
			노 인 52,800	
14:00~14:50	성인수영	A반 월수금	성 인 51,700	성인 여성
		실 버 수 영	화목(토) 44,000	
15:00~15:50	성인수영	B반 월수금	성 인 51,700	성인 누구나
			노 인 48,400	
16:00~16:50	돌고래수영	A반 월수금	39,600	초1~6년
		B반 화목(토)	33,000	
17:00~17:50	하마수영	A반 월수금	39,600	초1~6년
		B반 화목(토)	33,000	
18:00~18:50	직장인수영 (격 일)	A반 월수금	성 인 51,700	성인 누구나
			노 인 48,400	
19:00~19:50	직장인수영 (매 일)	C반 월~금	성 인 67,100	청소년 이상
		D반 월~금	청소년 60,500	
20:00~20:50	아간수영		성 인 67,100	성인 누구나
			노 인 52,800	
21:00~21:50	아간수영		성 인 67,100	성인 누구나
			노 인 52,800	
15:00~15:50	주말수영 (배영이상)	토	25,000	초2~6년
12:00~12:50 15:00~15:50 12:00~12:50 13:00~13:50 13:00~13:50	아쿠아로빅	A반 화목토	성 인 60,500 노 인 52,800	성인 여성
		B반 화목(토)		
		C반 월수금		
		D반 화목토		
		F반 월수금		
18:00~18:50		E반 화목(토)	45,000	성인 누구나
06:00~07:00 08:00~09:00 10:00~11:00 17:00~18:00 19:00~20:00	월 자유수영	A반 월~금	성 인 53,900	청소년 이상
		B반 월~금	노 인 33,000	
		C반 월~금	청소년 46,200	
		D반 월~금	청소년 46,200	

요가 ※부가세 포함

시 간	프 로 그 램	요 일	참 가 비	대 상
06:00~06:50	새벽요가	A반 월수금	주2일반 38,500	청소년 이상
07:00~07:50		B반 월수금		
08:00~08:50		C반 화목		
10:00~10:50	웰빙요가	A반 월수금	주3일반 38,500	청소년 이상
11:00~11:50		B반 화목		
14:00~14:50 15:10~16:00	생활요가	A반 월수금	성 인 50,600	청소년 이상
		B반 화목		
16:00~16:50	아로마요가	A반 월수금	성 인 38,500	청소년 45,100
17:10~18:00		B반 화목		
19:00~19:50	직장인요가	A반 월수금	성 인 38,500	청소년 이상
		B반 화목		

생활체육 ※부가세 포함

시 간	프 로 그 램	요 일	참 가 비	대 상
06:00~22:00 토 18:50까지	헬스클럽	월~토	성 인 47,300 노 인 38,500 청소년 38,500	청소년 이상
06:00~06:50 07:00~07:50 08:00~08:50 09:00~09:50 10:00~10: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배드민턴	A반 월~목 (강습)	성 인 45,100 노 인 38,500	청소년 이상
		B반 월~목 (강습)		
		C반 월~목 (강습)		
		D반 월~목 (강습)		
		E반 월~목 (강습)		
		F반 월~목 (강습)		
		G반 월~목 (강습)		
		H반 월~목 (강습)		
		I반 월~목 (강습)		
18:00~18:50 19:00~19:50 20:00~20:50	탁구	A반 월~목 (강습)	성 인 41,800 노 인 38,500	성인 이상
		B반 월~목 (강습)		
		C반 월~목 (강습)		
16:00~16:50	어린이배드민턴	월수금	38,500	초3~6년
16:00~16:50		화목	33,000	초1~6년
17:00~17:50	농구	B반 월수금	초 등 38,500	초4년~중학
06:30~07:20 09:00~09:50 09:00~09:50 10:00~10:50 14:00~14:50 15:00~15: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필라테스	B반 화목토	성 인 50,600 청소년 45,100 노 인 38,500	청소년 이상
		C반 화목토		
		D반 화목토		
		E반 화목토		
		F반 화목토		
		G반 화목토		
		H반 화목토		
		I반 화목토		
		J반 화목토		
15:00~15:50	실 내 축 구	화목	33,000	7세~초3년
16:00~16:50	발 레	화목	33,000	5세~7세
17:00~17:50	음악 줄 넘 기	화목	38,500	초등학생
17:00~17:50	어린이밸리댄스	월수금	38,500	7세~초등생
10:00~10:50 18:00~18:50	에어로빅	A반 월~금	50,600	성인 누구나
		B반 월~금	51,700	
16:00~16:50	밸 리 댄 스	월수금	성 인 50,600	성인 누구나
		초 급	노 인 38,500	
19:00~19:50	댄 스 스포 츠	화목	성 인 39,600	성인 누구나
		초 급	노 인 38,500	
20:00~21:30	댄 스 스포 츠	화목	성 인 44,000	성인 누구나
		중 급	노 인 38,500	

문화 ※부가세 포함

시 간	프 로 그 램	요 일	참 가 비	대 상
14:00~14:50	속 독 논 술	토	25,000	초등~중학
14:00~14:50	바둑	A반 토	30,000	초1~초6
15:00~15:50		B반 토		
15:10~16:00	신나는 과학교실	금	30,000	6~초3
15:10~16:00	동 화 구 연	월	25,000	5~7세
15:10~16:00	블록놀이(아이링고)	수	30,000	6~7세
15:10~16:00	지니맥	A반 수	30,000	유치부
16:10~17:00		B반 수		



부산스포츠클럽배 아마추어 탁구대회 성료



지난 4월 14일(토)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부산스포츠클럽배 아마추어 탁구대회'가 많은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스포츠클럽이 주최하고 북구국민체육센터와 북구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2018 부산스포츠클럽배 아마추어 친선 탁구대회'에 부산국민체육센터, 시하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회원 등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으로 열띤 경기를 펼치며 대회를 뜨겁게 마무리 하였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시민과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대회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스포츠클럽, 학교 밖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운영

북구스포츠클럽은 5월 12일(목)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학교 밖)'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휴업일에 학생들의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이들의 체력강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진행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3개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 위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해 무료로 운영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영 성인 주5회(68,000) / 주3회(44,000) / 주2회(33,000)
청소년 주5회(60,000) / 주3회(38,000) / 주2회(25,000)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굿모닝	06:00~06:50	초급	초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07:00~07:50	초급	초급(25명)
		중/고급	
		연수	
		초/중급	
	08:00~08:50	초급	초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09:00~09:50	초급	초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10:00~10:50	초급	초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11:00~11:50	초급	초급(25명)
		중/고급	
		연수	
		초/중급	
가복이	15:00~15:50	성인조합	연수(40명)
		성인조합	
		초급	
		중/고급	
	19:00~19:50	초급	초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20:00~20:50	초급	초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21:00~21:50	초급	초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쿠아로빅 주2회 44,000원 주3회 5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아쿠아로빅	12:00~12:50	초급	50명
	14:00~14:50	중급	80명

방과후 수영 어린이 46,000원 유아 3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어린이수영	12:00~12:50	어린이초급반	초급 (25명) 중급 (30명) 고급 (30명) 연수 (30명)
	14:00~14:50	어린이중급반	
	17:00~17:50	유아(월, 수, 금)	
		초급	
	18:00~18:50	초급	초급 (25명) 중급 (30명) 고급 (30명) 연수 (30명)
		중급	
		고급	
		연수	

주말수영 어린이 35,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주말수영	토, 일 11:00~11:50	주 2회	주 2회
핀수영	토, 일 09:00~09:50	주 2회	주 2회

(월)자유수영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8,000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월)자유수영	1부 08:00~08:50	월 ~ 금 (주 5회)
	2부 12:00~13:50	
	3부 18:00~18:50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일	8:00~8:50		월~금
		12:00~12:50		
		18:00~18:50		
	주말	1부	9:00~11:50	주말/공휴일
		2부	13:00~17:50	
12:00~13:00 수질정화시간 (원장불가)				
이용요금	회원		비회원	
	성인	2,300원	성인	3,300원
	청소년	1,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200원	어린이	2,200원

스튜디오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타бата (월, 수, 금)	06:00~06:50	25명	성인 50,000원
타бата (화, 목)	06:00~06:50		성인 40,000원
요가 (월~금)	07:00~07:50		성인 57,000원
요가 (월~금)	19:00~19:50		청소년 50,000원
줄비로빅 (월, 수, 금)	09:00~09:50	25명	성인 47,000원
뮤직필라테스 (화, 목)	09:00~09:50		성인 42,000원
파워로빅 (월~금)	10:00~10:50		성인 57,000원
파워로빅 (월~금)	11:00~11:50		청소년 50,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 (월~금)	20:00~20:50	25명	성인 57,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 (월~금)	21:00~21:50		청소년 50,000원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12:50	월, 화, 목	30	30,000원
건강스트레칭(B)	19:00~19:50	월, 화, 목	30	30,000원
바디 체인지(A)	15:00~15:50	월, 화, 목	30	30,000원
바디 체인지(B)	16:00~16:50	월, 화, 목	30	30,000원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시간	정원	(월)회비
배드민턴 (월~금)	12:00~12:50	30	30,000원
	15:00~15:50	30	30,000원
	16:00~16:50	30	30,000원

헬스클럽

프로그램	운영시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30~21:50	성인 46,000원
	주말, 공휴일 19:00~17:50	청소년 41,000원

감면할인 대상자

할인율	대상자(중복할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 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시
10%	6개월 등록시
5%	3개월 등록시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서류 첨부을 하셔야 할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센터 운영시간	평일	06:00~
	주말(공휴일)	09:00~18:00
센터 접수기간	기존회원	매월 21일~23일
	신규회원	매월 24일~마감까지
센터 정기휴관	매주 첫 패주 / 셋 패주 수요일	
문의전화	TEL	051-365-7070
	FAX	051-365-8070



테니스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4월 29일(일) 장군산테니스장에서는 10개 클럽, 200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모여 테니스 경기를 펼쳤다. 그 동안 클럽 활동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다져온 동호인들이 숨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제14회 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4월 29일(일) 강서체육관 준비운동장에서 6개 클럽, 33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모여 배드민턴 경기를 펼쳤다. 연령별, 급수별로 남자 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체력과 기술이 향상된 동호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유대감이 강화되는 기회를 가졌다



14회 비치윌트라 마라톤대회 참가

지난 3월 3일(토)부터 4일(일)까지 양일간 비치윌트라 마라톤 조직위 주최로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진해 유람선터미널까지 왕복코스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그 중 서구대표팀은 16명이 참가하였다. 지역관광지 홍보 및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훌륭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동호인들은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3월 5일(월)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12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안), 감사선출(안), 회원단체 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이어서 동구체육회는 지난 4월 17(화)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34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이날은 박주석 수석부회장이 사임하고 황현선 상임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위촉되었다. 그리고 신규임원으로는 강병윤 부회장이 위촉되었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올해 동구체육회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3월 5일(월) 영도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영도구체육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대의원, 직원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 영도구체육회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이사 조직 재정비의 건, 준회원단체 가입의 건, 기타토의 등을 논의하였으며, 회의 이후에는 저녁식사와 함께 영도구 체육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1회 영도구체육회장배 한마음 골프대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4월 2일(월)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영도구체육회장, 수석부회장, 스포츠후원회위원장 및 골프대회 참가자 40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영도구체육회장배 한마음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자라나는 꿈나무 체육인재 육성 및 비인기종목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제32회 부산진구협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

부산진구민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1일(일) 삼락테니스구장, 화명테니스구장에서 테니스동호인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2회 부산진구협회장배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청배 1위는 국제백양, 2위는 팀위너스A, 3위는 상우회, 동배 1위는 청송클럽, 2위는 한결클럽, 공동3위는 신우회, 양정현대클럽이 차지하였고, 최우수선수상으로는 제덕금(청송클럽) 선수가 선정되었다.



제5회 휴병원장배 겸 제24회 부산진구배드민턴 협회장기대회 개최

이어서 지난 4월 1일(일) 강서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제5회 휴병원장배 겸 제24회 부산진구배드민턴 협회장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1,200여 명이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 1위는 백양클럽, 종합 2위는 개성클럽, 종합 3위는 성지클럽, 종합 4위는 진고클럽, 종합 5위는 황령클럽이 각각 차지하였다.



제37회 부산진구 축구협회장기 준계대회

지난 4월 15일(일) 황령산레포츠공원 및 개성고등학교 축구장에서는 200여 명의 축구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37회 부산진구축구협회장기 준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공동 1위는 서면축구회, 충무축구회가 차지하였고, 최우수선수상으로는 박성진(서면), 김동민(충무)선수가 선정되었다.

● 제37회 동래구축구협회장기대회 개최

동래구체육회

지난 3월 18일(일) 부산환경공단에서 200여 명의 축구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7회 동래구축구협회장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1위는 온천축구회, 2위는 위너스축구회가 차지하였으며, 대회를 통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2018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설명회 개최

지난 3월 23일(금) 동래구청 제1별관 6층 대회의실에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담당 교사 및 강사가 참석하는 「2018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사업개요 설명 및 토요스포츠강사 시스템 설명 등 공지사항을 안내하였으며, 학생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체력강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으로 지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 생활체육교실 (골프, 댄스스포츠, 타바타뮤직복싱) 개강

남구체육회

남구체육회는 남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교실(3월 - 골프, 댄스스포츠, 4월 - 타바타뮤직복싱)'을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19회 남구탁구협회장배대회 개최

지난 4월 1일(일)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500여 명의 탁구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남구탁구협회장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탁구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탁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임을 알리게 되었다.



제33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4월 7일(토) 2,500여 명의 구민이 참가한 가운데 「제33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스타트하여 이기대 순환도로를 따라 백운포 체육공원까지 약 6.5km 구간을 걸으며 이기대와 오륙도의 절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스를 따라 곳곳에는 걷기축제 참가자들이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고, 스타트지점과 피니시지점에서는 국민체력100 부스를 통해 건강을 점검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 북구배드민턴협회장배 대회 개최

북구체육회

지난 3월 18일(일)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북구배드민턴협회장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 경기결과 1위는 명천클럽, 2위는 신명클럽이 차지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동호인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북구청장배 직장인축구대회 개최

지난 4월 8일(일) 화명운동장에서 3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북구청장배 직장인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행사를 통해 축구 동호인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경기결과 1위는 서원유통, 2위는 북부경찰서가 차지했다.





● 비트로배 겸 제19회 해운대구배드민턴협회장기 춘계대회 개최

해운대구체육회



지난 3월 3일(토)부터 3월 4일(일)까지 양일간 동호인의 상호간 결속력을 다지며,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비트로배 겸 제19회 해운대구배드민턴협회장기 춘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약 1,0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였으며, 대회결과는 1위 청산, 2위 동백, 3위 송정팀이 차지하였다.

송정 테니스파크 기공식 개최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4월 6일(금) 신송정역 철도부지에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송정 테니스파크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공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해운대구체육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을 비롯하여 3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해운대구게이트볼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4월 7일(토) 행복체육공원에서 동호인의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약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운대구게이트볼협회장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친선 경기를 통하여 게이트볼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37회 해운대구축구협회장기축구대회 개최

지난 4월 22일(일) 장산인조잔디구장 및 센텀구장에서 「제37회 해운대구축구협회장기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총 304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장이 되었다. 대회결과 1위는 와우축구회, 2위는 재송축구회, 공동3위는 해동축구회와 장산축구회가 차지하였다.



● 제6회 사하구협회장배 볼링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



지난 4월 15일(일) 코스모스볼링장에서 동호인 150여 명이 참가한 「제6회 사하구협회장배 볼링대회」가 열렸다.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동호인 모두가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장이 되었다. 이번 대회 결과 1위는 전경진, 2위 손병기, 3위 임경주 선수가 각각 수상하였다.

제24회 사하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4월 7일(토) 을숙도테니스장에서 「제24회 사하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동호인 800여 명을 포함한 내빈들이 참석하였으며, 경품권 추첨으로 동호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제35회 사하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지난 4월 15일(일) 을숙도 인조잔디구장에서 「제35회 사하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많은 클럽들이 참가하여 축구동호인들의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클럽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회결과 1위는 감천FC, 2위는 부민FC, 공동3위는 하단FC, 상록FC에게 돌아갔다.



제11회 사하구스쿼시연맹회장배대회 개최

지난 4월 22일(일) 동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1회 사하구스쿼시연맹회장배대회」가 개최되었다. 선수들은 그 동안 꾸준히 다져온 실력을 발휘하여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각자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결과 여성부 1위는 이은미(동주830), 2위 유향숙(드라이브), 3위 김정미(블랙볼), 남자 1위 박인제(드라이브), 2위 김세환(동주830), 3위 백태조(동주830)가 차지하였다.





● 금정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3월 13일(화) 금정구청 민방위훈련교육센터에서 '금정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금정구체육회의 많은 임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토의하였다. 주요 안건은 2017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체육회 이사 해촉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의 건,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건, 2018년 신규종목협회 가입의 건, 감사 선임의 건, 규정 개정의 건 등이 있었으며 신규종목 회장 위촉장 전달도 진행되었다.



금정구배구협회 어머니·교사 클럽 배구대회 개최

지난 3월 17일(토) 금정구민체육관에서 '금정구배구협회 어머니·교사 클럽 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들과 가족들의 응원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로써 모든 동호인들이 함께 즐기며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대회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금정농협조합장배 겸 제23회 금정구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난 3월 18일(일) 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금정농협조합장배 겸 제23회 금정구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내·외빈들이 자리를 빛낸 가운데 각 클럽의 화려한 입장식이 펼쳐졌다. 이날 동호인들은 클럽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그 동안 쌓아온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였다. 대회 결과로는 입장상 1위 스포원클럽, 2위 금사클럽, 3위 금실클럽, 4위 금정클럽, 5위 금체클럽이 차지하였고, 종합순위 1위는 금정클럽, 2위 청수클럽, 3위는 도시철도클럽이 수상했다.



명성치과와 함께하는 제5회 금정구협회장배 탁구대회 개최

지난 3월 25일 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명성치과와 함께하는 제5회 금정구협회장배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결과, 남자 우승은 1·2부-김재은(오순정), 3부-함성룡(오순정), 4부-김성훈(홍연호), 5부-반필규(승학), 6부-이성빈(이정예), 7부A그룹-홍민기(파크), 7부B그룹-홍민기(파크)에게 돌아갔고, 여자 우승은 1/2부-이진남(월드), 3부-정혜정(포스), 4부-진성란(청인), 5부-최경숙(이정예), 6부-권예숙(한우리), 7부-우미경(텐울) 동호인이 수상했다.



● 강서구체육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단체격려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3월 13일(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찾아가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강서구체육회의 임원을 비롯한 동호인 25명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길 걷기대회 참가

이어서 지난 3월 30일(금)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에서 '벚꽃길 걷기대회'의 준비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축제 참가자들과 함께 낙동강변 독에 심어진 2,700그루의 30리 벚꽃길을 걸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장을 만들었다.



어린이 모형항공기대회 개최

지난 4월 1일(일)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에서는 강서구체육회의 주관으로 '어린이 모형항공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강서구 관내의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참가자 총 150여 명과 가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꿈나무들의 자기계발 시간과 함께 가족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활동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다.



임원연수단합대회 개최

이어서 지난 4월 12일(목) 하동 쌍계사에서는 강서구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연수단합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강서구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되었다.



연제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지난 3월 11일(일) 연제구 부산환경공단에서 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한 「연제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열렸다. 연제구축구협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동호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날 경기결과는 1위 동성클럽, 2위 거성클럽이 차지하였다.

제12회 연제구청장기 탁구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3월 18일(일) 탁구 동호인 4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2회 연제구청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남자 1위는 동그라미클럽, 2위 돌고래클럽, 공동3위 액티브A클럽, 한우리클럽 그리고 여자 1위는 G나인클럽, 2위 포스클럽, 공동3위 거현클럽, 연제A클럽에게 돌아갔다.



제1회 연제구청장기 합기도대회 개최

이어서 지난 3월 25일(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5개 클럽 300여 명의 동호인들이 모여 「제1회 연제구청장기 합기도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결과 종합 1위 신화합기도클럽, 종합 2위 선비무관합기도클럽, 종합 3위 거제합기도클럽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선수로는 선비무관합기도클럽의 김대영 동호인이 선정되었다.



제23회 연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난 4월 8일(일) 배드민턴 동호인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정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제23회 연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결과 1위는 연제클럽, 2위 연신클럽, 3위 늘푸름클럽이 차지하였다.



수영구 왕초보 생활체육 교실 접수 및 운영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3월 14일(수) 중바교실 외 10개 종목의 왕초보 생활체육 교실 회원모집을 수영구청 안 구민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모집 이후 왕초보 생활체육 교실 171명의 회원들은 지난 4월 2일(월)부터 중바교실 외 10개 종목에 무료로 참가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수영구족구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난 4월 1일(일) 동수영중학교에서는 7개 클럽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영구족구협회장배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족구대회는 족구의 대중화와 국민건강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영구체육회 3·4월 이사회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3월 15일(목)과 4월 19일(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이충욱 이사 선임 및 위촉장이 수여되었으며, 수영구체육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2차 사상구체육회 이사회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3월 8일(목) 사상구청 지하 신바람홀에서 「제2차 사상구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사상구체육회 이사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제정 심의, 신임이사 위촉, 유공자 감사패 전달, 상반기 사업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사상구체육회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이어서 지난 3월 19일(월) 사상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는 「사상구체육회 대의원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는 사상구 대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회원단체 가입종목 의결의 건, 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제정 보고, 상반기 사업보고에 관한 회의로 진행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제16회 사상구 탁구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난 4월 1일(일) 사상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16회 사상구 탁구협회장기 대회」가 진행되었다. 12개 클럽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페어플레이 규정을 준수하고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정당당당하게 승부를 겨룬 끝에 남자 단체전은 TNT, 우정C 클럽이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공동 3위는 럭키A, 우정B클럽에 돌아갔다. 여자 단체전 1위는 럭키A클럽, 2위는 스마트D클럽, 공동 3위는 우동탁A, 고고A 클럽이 수상했다. 이어 남자 개인전에서는 1위 주례럭키클럽 손형주 선수, 2위 무소속 정호영 선수가, 여자 개인전에서는 1위 무소속 노경민 선수, 2위 우정클럽 카니 선수가 영광을 차지하였다.



사상구민 신바람 걷기대회 개최

지난 3월 31일(토) 삼락생태공원 럭비구장에서 「사상구민 신바람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벚꽃이 만개한 따스한 날씨 속에 사상구민 4,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럭비구장 - 중앙광장 - 수상레저타운 - 전망대 - 경전철 다리 밑 - 문화마당 - 감전배수장 - 르네시떼 육교 - 공원입구 - 럭비구장 코스로 약 5km에 걸쳐 걷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제4회 기장미역다시마배 전국 남·여 배구대회 개최

지난 3월 24일(토) 배구 예선전을 시작으로 3월 25일(일) 양일간 기장체육관에서 「제4회 기장미역다시마배 전국 남·여 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대회인 만큼 기량이 뛰어난 동호인 팀이 대거 참가하였다. 20대 선수부터 장년부까지 1,000여 명 선수가 참가하여 배구실력을 겨루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경기결과 남자우승은 울산레인보우, 여자우승은 울산스타, 장년부 우승은 동초회에게 돌아갔다.



기장군 체육인대축전대회 참가

매년 4월(4월 7일~8일, 4월 14일~15일) 기장 관내에서 개최되는 기장군 체육인대축전대회는 총 14종목(검도, 태권도, 그라운드골프, 족구, 탁구, 볼링, 파크골프, 게이트볼, 패러글라이딩, 테니스, 축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으로 진행된다. 이 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하여 동호인 모두 우애와 친목을 다지는 뜻 깊은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스키협회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스키부 창단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신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아침요가, 직장인요가 교실이 개강된 것이다. 신규 프로그램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해 개강 이전에 회원을 대상으로 4월 30일(월) 공개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부산광역시펜싱협회 부산외국어대학교 펜싱부, 종별펜싱선수권대회 남자부 2관왕

지난 3월 11일(일)부터 3월 12일(월)까지 양일간 전남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7회 펜싱회장배 전국남녀종별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부산외국어대학교 펜싱부는 남자 플뢰레 대학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부산외대 펜싱부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 플뢰레 대학 및 일반부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이력이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농구협회 제56회 부산광역시 춘계농구대회 겸 제99회 전국체육대회 1차 예선대회 제21회 부산광역시농구협회장배 춘계생활체육농구대회

지난 3월 31일(토)부터 4월 1일(일)까지 2일간 중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동아고등학교와 부산중앙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농구 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6회 부산광역시 춘계농구대회 겸 제99회 전국체육대회 1차 예선대회 및 제21회 부산광역시농구협회장배 춘계생활체육농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광역시바이애슬론연맹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3월 28일(수) 남천동 연합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의원 총회를 계기로 더욱 발전된 바이애슬론연맹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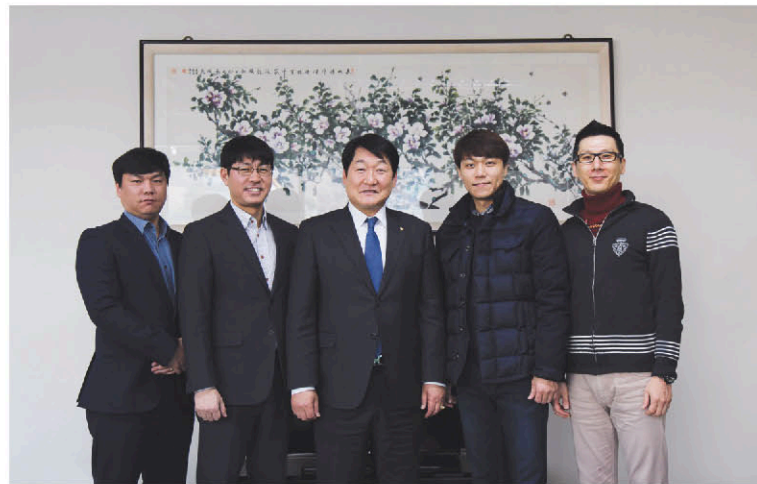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컬링협회
건국고등학교 레슬링·컬링부 창단



건국고등학교는 지난 3월 15일(목) 부산광역시컬링협회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체육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자 컬링팀 창단식을 가졌다. 대저고등학교 남자 컬링팀이 지난 2016년 해체된 지 2년 만에 고등부 컬링팀이 부활한 것이다. 건국고등학교 컬링팀은 주장 정유돈을 비롯해 박준서, 최재혁, 원유빈, 이재성 선수로 이뤄져 있다.

이번 컬링부 창단을 통하여 컬링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과 부산의 동계체육 자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레슬링부도 재창단했다. 건국고 레슬링부는 몬트리올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의 모교이기도 하다.

- 부산광역시당구연맹
최성원 선수 3쿠션 챔피언 달성



당구 최성원 선수는 한국 3쿠션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하였다.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월드컵보다 더욱 권위 있는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건 최성원 선수가 처음이다. 참고로 최성원 선수는 독일 비어센에서 개최된 '2018 세계팀3쿠션선수권대회'에서도 강동궁(전북) 선수와 호흡을 맞춰 오스트리아팀을 상대로 40:30으로 이겨 우승컵을 손에 쥐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 부산광역시킥복싱협회
제1차 부산킥복싱 통합심사 대회



지난 3월 11일(일) 강서구 특사GYM에서 부산광역시킥복싱협회 주관으로 서부권(서구, 강서구, 사하구, 진구) 지역 킥복싱 통합심사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킥복싱 인구 저변확대 및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 결과 1단 21명, 2단 11명의 유단자가 배출되었으며 서부권 지역의 킥복싱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제37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기 및 대선 축구대회



지난 3월 18일(일)과 3월 25일(일) 기장 월드컵빌리지 일원에서 1,500여 명의 축구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37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기 및 대선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호인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그 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축구를 통해 동호인들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부산광역시씨름협회
제39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씨름대회



부산씨름협회와 부산시교육청이 주최한 부산시협회장기씨름대회에는 부산지역 초등부, 중학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올해 6월 충북 충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부산 대표선수 선발전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초등부 및 중학부 선수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부산광역시보링협회
구성희 선수, 아시아경기대회 보링 국가대표 발탁



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보링팀의 구성희 선수가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나라 보링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참가하게 된다.

구성희 선수는 지난 3월 13일 충북 진천선수촌 보링장에서 개최된 국가대표최종 선발전에서 1, 2, 3차 총 162게임 합계점수 35,579점(평균 219.6점)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

● 부산광역시요트협회
부산요트선수 대통령기 종합우승

부산광역시 요트 선수단이 지난 4월 9일 (월) 충남 보령시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제 3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등학생, 대학생, 일반부 선수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하였다. 총 2개 종목, 10개 클래스, 35개 부로 나뉘어 210여 명의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쳤으며 레이저급 1위, 윈드서핑과 2인승 49er급 2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개성고등학교 아마추어 야구장 개장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야구협회는 개성고등학교 야구장 개장식 이후, 지난 4월 2일(월) 아마추어 야구장을 개장하였다. 개성고등학교 야구장은 예산 11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명탑·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더그아웃과 그물망·충돌 방지벽도 교체했으며 올해 초·중학교 대회를 중심으로 약 70회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NEWS PANORAMA

2018년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연수회 개최



대한체육회는 3월 30일(금)부터 2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18년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회에는 스포츠인권 전문인력과 시도체육회 및 회원 종목단체의 스포츠인권 업무담당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전문인력의 교육 및 업무역량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스포츠인권교육 운영 방향 안내와 강의 시연 등을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인권 향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수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2018년 스포츠인권 향상 주요사업 및 스포츠인권교육 운영 방향 안내', '표준교안과 대상별 교육과정을 이용한 강의 시연', '스포츠 현장의 폭력 및 성폭력, 법률적 대처 방안',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 등 전문인력이 스포츠인권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대한체육회는 올해부터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연수회를 수료한 자에게만 2018년도 스포츠인권 전문인력 활동을 승인하여,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스포츠인권교육에 대한 내실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향후 전문인력풀 자격과 재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스포츠인권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2018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155개소 운영

대한체육회는 2018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대상학교 155개소를 선정하여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운영 중인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방과 후나 휴일 등 학생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유휴 시간대에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다



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개방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주민 자유허용 공간과 회원이용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자유허용 공간에서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고, 회원이용 공간에서는 생활체육교실에 참가하거나 자유허용을 할 수 있다.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학생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가하는 가족운동회, 엄마 아빠와 함께 참가하는 체육프로그램 등 가족 중심의 체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개방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개방학교에 전담 관리자를 파견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해당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국 155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 개방학교는 대한체육회 체육포털(<http://www.sportal.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운영 스포츠 프로그램은 지역 시·군·구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NEWS PANORAMA

3 공공스포츠클럽 멘토링 프로그램 ‘Sports Club Together’ 운영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클럽 간에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포츠클럽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멘토링 프로그램 ‘Sports Club Together’를 운영한다. 지난 4월 20일(금) 17개 멘토링팀(선배 멘토클럽 17개소, 후배 멘티클럽 19개소)이 경기도 오산스포츠클럽에 모여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스포츠클럽 멘토링은 선배 스포츠클럽이 새로이 운영을 시작한 후배 스포츠클럽(멘티)에게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문의사항에 대해 조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3년차 이상인 스포츠클럽이 선배로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멘티가 된 운영 1~2년차의 신규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멘토-멘티 스포츠클럽의 매칭은 멘티의 수요에 따라 지역별, 스포츠클럽 운영 특징별(종목, 시설여건 등)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전체 62개 공공스포츠클럽 중 36개 스포츠클럽(멘토클럽 17개소, 멘티클럽 19개소)이 참여하게 되었다.

결연식 행사는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대상인 스포츠클럽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연을 맺은 17개 멘토링팀은 2018년 한 해 동안 스포츠클럽 운영, 프로그램 구성, 회원모집 및 홍보, 외부기관 협약 노하우 등을 주제로 2~4회 멘토링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상호 피드백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4 2018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 전문교육 실시



대한체육회는 5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사흘간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리조트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담당자 및 관리매니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관리매니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설관리,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이다.

전년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교육 참여자 의견을 반영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의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개요 및 우수사례 공유, 실기교육 및 경기관력분석, 스포츠 안전 및 윤리, 마케팅, 회원관리 등으로 일정이 운영되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방과 후 및 휴일 등 유휴 시간대에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155개 학교가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업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5 청소년프로그램 매칭사업에 1억 원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파크텔은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하여 '2018년도 청소년프로그램 매칭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화) 청소년프로그램 매칭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24개 단체 중 심사를 거쳐 13개 청소년단체를 선정, 총 1억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한국라보, 대한스포츠테강협회,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서울YMCA, 안양시만안청소년문화의집, 대자연,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체육진흥교육협회'이며, 평소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이다.

공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더 큰 꿈과 밝은 미래를 위해 각 프로그램 진행 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야구에 울고 야구에 웃고,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스포츠팬의 응원을 보고 싶다면 부산으로 가라” 영국 BBC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이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비닐 ‘봉다리’를 머리에 뒤집어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마~ 마~ 마! 아주라~” 다 함께 함성을 지르다 보면 재미와 함께 벅찬 동질감이 느껴진다. 맞다, 그렇고말고, 우린 부산갈매기들이란다. 부산 시민들에게 야구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야생야사(野生野死)’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사람들, ‘부산=야구의 수도’라는 등식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래서 롯데의 경기 결과는 부산 사람들의 그날 기분을 좌우한다고들 한다. 때로는 맹목적인 종교처럼, 때로는 다 함께 울고 웃는 축제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야구는 부산 사람들에게 스포츠 그 이상의 무언가임이 틀림없다.

기록과 열정의 스포츠, 야구

봄과 함께 찾아온 2018 프로야구. 연일 경기가 계속되면서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야구는 축구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 1905년 미국 선교사 질레트가 YMCA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것이 우리나라 야구의 시초라고 하지만, 본격적인 프로야구는 1982년에서야 시작되었다. 우리 프로야구는 그 역사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그 인기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 불사조 박철순, 무등산 폭격기 선동렬의 이름은 야구 문의 한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사람도 ‘한국 시리즈’의 결과를 궁금해 한다. 이처럼 한국 프로야구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팬들이 어린 시절 각자 응원하던 팀에 대한 추억을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고, 한때 자신이 선했던 선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야구는 이렇게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부산을 빼고 야구를 논하지 말라

특히, 부산사람들에게 야구는 특별한 스포츠다. 시즌 기간이면 다셋이 모이는 자리에 두어 명은 야구 애기로 꽃을 피우기 마련이다. 성지 중의 성지, 사직야구장 인근 술집에는 웬만하면 중일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중계되고 있다. 응원하는 팀의 성적이 좋으면 술자리 분위기도 살랑살랑 봄바람마냥 무르익지만 돌연 역전패라도 당하는 날이면 이거 뭐야? 일대 공기가 순간 싸늘해진다. 그렇지만 오늘 졌어도 내일은 이길 수 있으리라는 희



초보 야구팬을 위한 Tip

야구에 처음 입문하는 초보 팬이라면, 생소한 야구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야구 용어를 미리 안다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야구장에 가기 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

- 포지션 :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중견수, 우익수, 좌익수, 지명타자
- 삼진 : 스트라이크 3개
- 볼넷 : 볼이 4개 들어오면 1루로 출루
- 안타 : 공을 쳐서 공보다 베이스에 먼저 도착하는 것
- 홈런 : 공을 쳐서 펜스를 넘기는 것
- 만루 홈런 : 1루에서 3루까지 베이스에 3명의 주자가 꼭 차 있을 때 타자가 홈런을 치는 경우
- 굿바이 홈런 : 9회 말이나 연장전에서 공격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타자가 친 홈런이 결승 타점을 기록하여 역전승
- 연타석 홈런 : 한 타자가 연속으로 홈런을 치는 경우
- 번트 : 배트를 크게 휘두르지 않고 수평이 되도록 하여 공을 약하게 맞추어 내야에 떨어지도록 하는 공격 기술, 주루상에 주자가 있을 경우 1베이스를 더 진루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전
- 병살타 : 더블 플레이라고도 하며, 타자의 타격 후 수비수가 그 타구를 잡아 2명의 공격수를 아웃 시키는 경우
- 데드볼 :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몸에 스치거나 맞는 경우로 머리에 맞을 경우 고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퇴장 가능

땅이 있기에 그들은 또 웃을 수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에서 드러나듯이 언뜻 지는 듯하면서도 만루홈런이나 병살타 같은 ‘한방’으로 대역전극이 일어나기도 한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9회 말 역전은 야구만의 매력이자, 그 리얼리티는 고스란히 우리네 인생과도 닮아있다. 이런 야구의 매력에 취해 그리고 삶에 취해 달리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한 달이, 한 계절이 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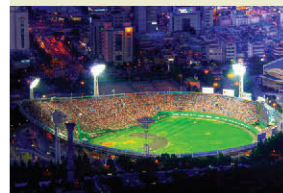
“올해도 가을야구 하자”

지난해 부산은 2012년 이후 5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올라 ‘가을야구’를 한 덕분에 사직야구장 주변 음식점과 통닭집, 맥주집, 편의점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밀려드는 손님들로 평소의 10배 이상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고.

롯데 자이언츠가 최근 승승장구하면서 사직벌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가을야구’를 바라는 부산 야구팬들의 기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이뤄질 수 있을까? 벌써부터 가을이 기다려진다.



‘구도(球都)’ 부산 야구장의 과거와 오늘



● 부산 야구의 상징, 사직야구장

명실공히 부산 야구 1번지, 사직야구장. 지난 1985년 10월에 완공되어, 이듬해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즌이 되면 사직동 일대가 들썩일 만큼 야구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공간.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100만 관중 동원, 역대 총 관중 500만 명 동원, 5년 연속 100만 관중 동원 등의 대기록이 사직야구장에서 달성됐다. 해마다 각종 기록들을 갈아치우는 기록의 공간으로 부산시민들의 스포츠 사랑이 곳곳에 담겨있는 곳이다.



● 아듀! 구덕야구장

부산 야구 역사의 산실이자 아마추어 야구인들의 성지인 구덕야구장이 40여년 만에 철거에 들어갔다. 1973년 서구 대신동에 건립된 구덕야구장은 사직야구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부산 유일의 야구장으로 ‘구도(球都)’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1986년

롯데가 사직야구장으로 홈구장을 옮기기 전까지 4시즌 동안 롯데의 홈구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후 화랑대기, 부산시장이 등을 치러내며 걸출한 야구 꿈나무들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으나 결국 세월의 벽은 이겨내지 못했다. 철거된 자리엔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 개성고 야구장 개설

부산 부산진구 개성고등학교 야구장이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이는 구덕야구장을 대신해 2021년까지 아마야구 임시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시가 직접 지난해 12월부터 개보수 공사를 해온 것이다. 부산시는 11억 2,000만 원을 들여 인조 잔디, 조명탑 신설, 더그아웃 개보수, 안전 그물망 설치, 충돌 방지벽 교체 등의 시설물 개선공사를 벌였다.



●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을숙도체육공원 리틀야구장

롯데 자이언츠의 성적과 인기에 따라 들썩날썩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리틀야구단 선수들 숫자다.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며 야구선수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어린이들. 현재 부산에는 금정·동·중구를 제외한 13개 구·군에 리틀야구팀이 있다. 그 수가 무려 200여 명. 취미반 학생들까지 합치면 5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마음껏 연습할 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2012년 건립된 을숙도 리틀야구장은 유소년 야구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되고 있다. 홈에서 좌우 펜스까지 거리가 각 66m, 센터 펜스까지 거리는 70m, 인조잔디 총면적은 4,266㎡. 여기에 더그아웃 2동, 라커룸 1동과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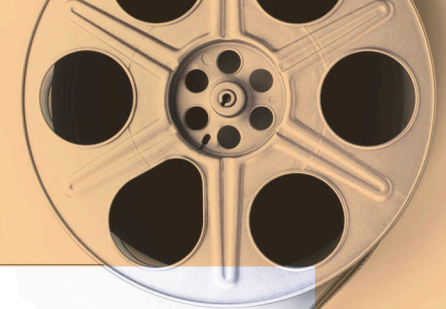
● 꿈의 야구장,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부산 기장에 들어선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꿈의 야구장’이라 할 만하다. 기장 일광면 동백리 일원 야구테마파크 부지 19만 6,515㎡에 들어선 야구장은 천연잔디구장 1곳과 국내 최고 수준의 인조잔디구장 3곳 등 모두 4개 구장으로 구성됐다. 천연잔디구장은 홈플레이트에서 펜스까지 거리가 중앙 122m, 좌·우 98m다. 1,2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춰 프로 2군 경기도 치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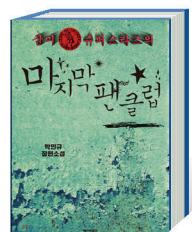
한국 프로야구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팬들이 어린 시절 각자 응원하던 팀에 대한 추억을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고, 한때 자신이 전망했던 선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야구는 이렇게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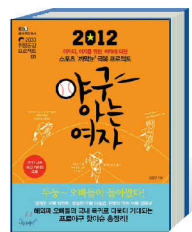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스포츠이기에 더욱 스틸 넘치는 스포츠, 야구. 9회 내도록 지고 있던 팀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역전에 성공하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 예상했던 팀이 손쓸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승부의 세계는 언제나 짜릿하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야구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 또한 넘쳐난다. 야구에 미친 골수팬도, 혹은 야구를 잘 모르는 이라도 한 번 보면 흠뻑 빠지게 될 책과 영화 몇 편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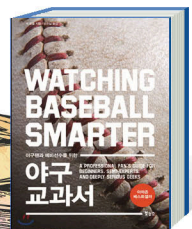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박민규

프로야구 원년의 해인 1982년. 그때 거기 도무지 뭘 해도 하나도 안 풀리는, 그런 팀이 있었다. 바로 인천 연고의 삼미 슈퍼스타즈. 팀 로고를 가득 채운 큰 별만큼이나 꿈은 원대했다. 감독도 선뜻 “우리 팀에는 슈퍼스타밖에 없다”며 장담했다. 그러나 현실은 곧잘 희망을 배반하는 법.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패배가 이어지는 불운의 팀. 야구경기 못지않게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삼미 슈퍼스타’들이 있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고 열광하는, 냉정한 승부가 지배하는 전쟁터. 그러나 1등보다 많은 꼴찌들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 책은, 그런 꼴찌들에게 보내는 갈채다. 작가의 위트와 필력이 돋보이는 대단한 소설.



야구 아는 여자 김정란 /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식 추천 도서

남친 따라 우연히 야구장 데이트에 나선 그녀. 구름 관중들의 열띤 응원, 치어리더들의 화려한 율동 그리고 야구장의 꽃, 치맥 먹방까지... 그러나 야구 룰을 1도 몰라 시시콜콜 남친에게 물어봐야 한다면? 남친曰 “나는 야구 아는 여자가 좋더라~” 야구에 까막눈인 여자들을 위해, ‘스포츠서울’에서 야구 기자로 활동해 온 저자가 야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조목조목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 야구에 대한 지식과 함께, 야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접목시켜 재미있게 야구 스토리를 풀어간다.



야구교과서 잭 햄플

가히 야구교과서라 할 만하다. 야구는 그야말로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게임이다. 치고 달리고 점수 내는 것이 아닌, 수많은 세밀한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만들어가는 종목, 야구. 이 책은 투구와 타격에서부터 베이스러닝과 수비에 이르기까지 야구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기술과 전략들을 망라하고 있다. 야구 칼럼니스트인 저자 잭 햄플이 메이저리그 전 구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관전하고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책이다.



퍼펙트 게임 (Perfect Game, 2011)

감독 : 박희관 출연 : 조승우, 양동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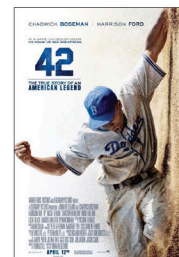
수식어가 따로 필요 없는 전설들의 치열한 맞대결. 롯데 최고의 투수 최동원과 해태의 천재 투수 선동열이 라이벌로 만났다? 지독한 연습벌레로 당시 야구계에 독보적인 존재였던 선배 최동원 그를 존경하며 닮고 싶어 한 후배 선동열. 선후배의 우정을 가로막는 게임이 시작됐다. 전적 1승 1패, 그리고 1987년 5월 16일. 같은 꿈을 향해 공을 던지는 두 남자의 마지막 맞대결을 재현해낸 영화다. 80년대 당시 프로야구의 인기와 두 국보급 선수의 생생한 대결을 만나본다.



아는 여자 (Someone Special, 2004)

감독 : 장진 출연 : 정재영, 이나영

한때 잘 나가던 투수였지만 현재는 프로야구 2군에 소속된 별 볼 일 없는 외야수 동치성. 애인에게 갑작스런 이별을 통고 받은 날, 설상가상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까지 받는다. 사랑도, 야구도, 인생도 모두 끝날 위기에 처한 그는 이내 자포자기 하지만, 이때 예전부터 그를 짝사랑해온 동네의 ‘아는 여자’가 다가온다. 야구의 ‘야도 모르는 그녀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죽기 전 비장한 각오로 마운드에 오르는데... 과연 그의 마지막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



42 (2013)

감독 : 브라이언 헬겔랜드 출연 : 해리슨 포드, 존 C. 맥킨리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1940~50년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최초의 흑인 선수, 재키 로빈슨. 42는 메이저리그에서 인종차별을 딛고 자신의 등번호 42번을 영구 결번으로 남긴 야구 전설, 재키의 인생 이야기다. 다저스에 입단한 그 순간부터 인종차별의 표적이 된 그는 흑인과는 함께 뛸 수 없다는 팀 동료들의 냉대, 따돌림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견뎌야 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인내와 재능은 팬들과 동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현재 재키 로빈슨의 현역시절 등번호 42번은 1997년 메이저리그 30개 전구단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해 그의 정신과 활약을 기리고 있다.



배터리 (The Battery, 2007)

감독 : 타키타 요지로 출연 : 하야시 켄토, 야마다 켄타

‘배터리’는 포수와 투수를 함께 부르는 말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야구영화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봉방학, 아버지의 전근으로 지방도시 닛타로 이사 온 천재적인 투구력의 소유자 하라다 다쿠미는 러닝을 나간 길에서 우연히 포수 나가쿠라 고를 만나게 된다. 아픈 동생을 위해 야구를 하는 다쿠미와 포수 고의 우정을 그려내는데 배터리간의 호흡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꼭 한번 봐야 할 영화다.

BOOK



부산시민이 만든

부산시민 11가지 건강생활 수칙



식사는 싱겁게, 골고루, 천천히 먹습니다.



술은 3잔 이하로 마시고, 권하지 않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말고 피하며,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3회 스트레칭을 실천합니다.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예방접종은 미루지 않습니다.



손씻기와 양치질은 잘하고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가족(친지, 지인)과 마음의 대화를 합니다.



내가 먼저 이웃과 웃으며 인사합니다.



우리 마을을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건강프로그램과 건강한 정책 만들기에 적극 참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워 운동하자!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술, 담배) **끊고!** (소금, 설탕) **줄이고!** (다함께) **운동하자!**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
「건강한 부산만들기」에 다함께 참여 합시다

문의 : 부산광역시청 건강증진과(888-3312~5), 16개 구·군보건소